

미래사회의 전환마을교육공동체

김영철(NCC교육위원회부위원장)¹⁾

들어가는 말

마을교육공동체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 된 혁신학교운동의 새로운 방향(시즌2)으로 제기되고 그동안 많은 논의와 실천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4차산업혁명이나 촛불혁명과 같은 이른바 ‘대전환의 시대’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또한 시작되고 있는데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된 개념이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이다.²⁾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환마을교육공동체에의 논의에 있어서는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이 융합되 산업의 구조변화로 끝나지 않고, 개인, 경제, 기업, 사회, 문화 전반의 사회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것이며 ‘교육’영역에도 큰 전환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미래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로 인해 미래의 학교교육이 단위학교내의 스마트학습으로의 변화를 넘어서, 물리적 비물리적 초연결성으로 인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상현실사회와 증강현실사회의 네트워크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로,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경기도교육청 사업을 중심해서 보자면 혁신학교와 더불어 진행 중인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이 지역 사회와 지나치게 분리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마을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며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 왔다. 한데 이러한 흐름이 일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교육이벤트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며, 미래교육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교육자치와 지역자치’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의 시작으로 사회적 대전환의 현상으로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셋째로,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 있어서 주로 학교가 주된 논의의 장이었고 마을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많이 주어졌다 하겠다. 그런데 앞의 교육자치와 지역자치가 통합되는 흐름을 상정해 보면 학교도 어떻게 보면 마을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초점의 반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구나 마을운동 또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회복과 생태가치 복원을 위한 생태마을운동이 처음 전개되었다가 요사이는 기존 마을이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전환마을운동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운동에 대한 전환을 살펴봄으로 미래의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하겠다.

전환의 시대의 한국교육과 미래교육의 방향

1. 대전환의 시대

최근에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과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29가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최근 광장민주주의(한국인의 사회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1) 김영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 토론토대학 닉스칼리지(기독교사회윤리학, Ph.D),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부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초빙연구원 현, NCC교육위원회부위원장

2) 김영철외,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안보고 2017-25).

역사적 사건 2위)의 흐름들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으로의 대전환의 방향을 예견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2015. 4)에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4차 산업혁명(Industrie 4.0)은 미래 독일, 나아가 미래 세계를 만들어 갈 핵심 키워드”라고 선언한다. 스위스 다보스포럼(2016. 1)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시한 화두 역시 ‘제 4차 산업혁명’이었다. 인류가 곧 유비쿼터스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통해 총체적 정보지식과 다층위적 관계망과 광속처리저장능력으로 초연결사회로 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최첨단 디지털정보기술(IT)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인지과학(CS)· 로봇공학· 에너지저장기술· 재료공학· 3D 프린팅 등이 생산을 주도하는 융합산업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혁의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예견한 것이다.

그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 패러다임의 산업혁명이 될 것이며, 그 이유는 속도와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 충격에서 전혀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다.³⁾

- 속도 (Velocity) : 산술적 가속이 아닌 기하급수적 속도전개. 이는 각 분야에서 각기 전개된 창조적인 신과학기술이 다면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며 가속화됨
- 범위와 깊이 (Breadth and depth) :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이 융합하되 산업의 구조변화로 끝나지 않고, 개인, 교육, 경제, 기업, 사회, 문화 전반의 사회구조적 전환을 유도. 그 심도는 사물과 생산측면 너머 인류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
- 시스템 충격 (Systems Impact) : 제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 속도전개와 인류사회 전범위의 심도 깊은 시스템의 패러다임변화를 야기하므로, 이로 인한 충격파는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국가전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변혁으로 이어짐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4차 산업혁명보고서’ 이후로 미래사회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2차는 전기화, 3차는 정보화가 키워드라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디지털과 물리 세계와의 결합, 바이오 분야의 혁신 등이 특징으로 이야기된다.⁴⁾ 4차 산업혁명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의 융합기술로 발전하여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2)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세계경제포럼인 Davos Forum에서는,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29가지를 선정했다. 이슈들 중 상당수가 제 4차 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긍정적인 세계성장발전 뿐 아니라 지구적 위험요소를 함께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3) 클라우스 슈밥 지음, 송경진 옮김 『제4차 산업혁명』(새로운 현재, 2016).

4) 이경전, “2016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Power Review(2016.2), KISA.

5) 김진숙,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월간교육』(2016 7월호).

- | | |
|-----------------------------|-------------------------------|
| 1. 종교, 민주주의적 급진주의 급증 | 16. 반응하고 응답하는 환경지능의 등장 |
| 2. 기후 변화 논쟁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 17. 개도국 경제력 강화와 국제사회 분권화 |
| 3. 지구촌고령화시대 소비패턴의 진화 | 18. 진보적 기업이 주도하는 일본의 부활 |
| 4. 녹색성장은 지구촌 공동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 19. 물 부족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공조 시스템 |
| 5. 다극, 분권화된 세계질서를 반영하는 국제기구 | 20. 주목받는 탈성장 시대, 기술과 공유경제가 주도 |
| 6. 국제 공조 요구되는 새로운 우주개발 시대 | 21. 경제학이 주도하는 시대는 갔다 |
| 7. 고령화는 부담 아닌 새로운 기회 | 22. 삶의 질 도전받는 메가시티 |
| 8. 선진국 중산층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 요구 | 23. 일자리 급감 우려되는 제3의 산업혁명 |
| 9. 정보통신기술 덕에 양지로 나오는 비공식경제 | 24.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신 자급자족 시대 |
| 10. 의식기술의 시대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 25. 개인이 주도하는 경제, 산업, 에너지 |
| 11. 안보, 첩보까지 뻗어나가는 빅데이터기술 | 26. 신기술이 낳은 새로운 경제성장 시대 |
| 12. 창조경제의 확대와 성장 | 27. 사물인터넷 덕에 더 싸고 빨라지는 비행기 |
| 13. 안전 도전받는 메가시티 사회 | 28. 평등·성장이 함께 가는 신 경제 패러다임 |
| 14. 좋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의 생존 | 29. 고용 없는 사회 대처하는 국가미래전략 |
| 15. 복잡해지는 세상 속 도전받는 국제개발기구 | |

*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29가지 (중앙일보, 2015.1.19.)

세계의 여러 석학들은 제 4차 산업혁명의 가공할 충격파가, 개인과 사회, 산업과 경제, 국가와 국가의 관념과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세상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29가지 이슈들과 4차 산업혁명과정이 서로 상호간섭하며 만들어내는 환경들은 교육계에도 큰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의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간 주요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예정이며, 2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았다. 다변화하는 미래직업을 위해 고정된 지식교육이나 육체적인 노동기술교육보다 복합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감성적 지능 등의 역량중심교육과정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대한민국사회의 대전환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이슈와 더불어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향한 전환에 직면해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2015년 7월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10년 뒤 한국사회는 다음의 10대 이슈에 의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⁶⁾

- | | | |
|------------------|----------------|-----------------|
| 1. 저출산·고령화 사회 | 2. 불평등 문제 | 3.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
| 4. 고용불안 | 5. 국가 간 환경영향증대 | 6. 사이버범죄 |
| 7. 에너지·자원고갈 | 8.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 9. 기후 변화·자연재해 |
| 10.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 | |

이 이슈들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는 더 심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는 또 다르게 이러한 분석 전후로 대한민국의 두 차례의 큰 사건으로 인한 각성을 경험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사회전반에 대한 각성'과 '촛불시민운동으로 평화로운 정권의 교체과정 속에서 국민주권의식의 확대'는, '더 넓은 영역의 민주주의' 확산과 '더 좋은 민주주의'에 대해 숙고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것은 광장민주주의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곳곳에서 종용하며 삶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다. 곧 가정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 기업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등 삶의 터전 전방위로 진화·발전되어가도록 시민 스스로를 움직이고 있다. 이제 '민주, 자치, 평화, 정의, 공동체'의 뜻을 품은 시민운동은 정치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의 터전 전방위로 확대되어야 할 대전환의

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미래이슈보고서>(2015), 5.

시점임이 분명하다.

2. 대전환 시대의 한국교육

1) 위기의 한국교육

교육은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현재를 일구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 한국교육은 유연성이 전혀 없는 전통적 학교체제가 강력히 구축되어, 세계적인 대전환의 미래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현교육적 상황이 담보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 한국교육이 이런 수동적 관행으로 오랫동안 경직화된 이유는, 첫째 국가기구 중 하나로서 대량화된 효율적인 국가인재양성시스템, 둘째 위계적이고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관료적 학교문화, 셋째 교육은 교사들만 할 수 있다는 전문가주의가 만든 폐쇄성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능중심의 입시몰입교육, 주입식교육, 경쟁적인 상대평가, 획일화된 교육과정,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제도 등으로 점철된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선진적 미래교육으로 나가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논쟁으로 얼룩진 교실, 도를 넘어선 폭력적인 학생문화, 교육양극화현상의 심화, 입시사교육 광풍, 공교육불신 심화, 인간소외의 현상, 학부모주도의 수동학습, 해비급상태의 교육과정의 질량 등 현장의 한국교육은, '위기'임이 분명하다.⁷⁾ 집·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사이클 안에서 경쟁적인 학습으로 인해, 배움의 본질인 '삶을 통한 배움, 공동체적 배움, 자기주도적 배움,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배움' 등에서 벗어난 교과서와 학교와 입시에 갇혀 버린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한국교육에도 역시 대전환이 필요하다.

2) 한국교육의 대전환

다행히도 한국교육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⁸⁾의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부터 공교육 내에 시작되어 교육계의 구조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여러 이머징 이슈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다음 세 가지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교수학습법의 변화를 통한 학습공동체형성이다. 이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되어 공교육에 확산되고 있는 교수학습운동으로 '협동학습, 배움의 공동체, PBL 수업, 플립러닝, 배움중심수업, 하브루타, 수업코칭, 학습코칭, 공동수업디자인, 전문학습공동체' 등은 단순한 재미있는 수업 혹은 교수법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육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통·협력·책임·학습공동체·역량중심·온-오프라인 연계·가르침과 배움의 주체·코칭·디자인·평생학습' 등의 교육본질적인 가치와 개념을 공교육에 심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전환, 학생들의 학습공동체화로의 전환, 섬과 같은 독립적인 교사들을 교사공동체로의 전환, 일방적 가르침중심에서 배움중심과 코칭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중심의 제도변화이다. 이는 특정교육영역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수준에서 더 큰 틀의 교육과정 중심의 제도변화들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초빙교장제도,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역량중심교육과정, 융합교육, 학생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점제 등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시스템'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 혁신학교를 필두로 한 다양한 제도들이 경직된 학교교육과정의 변화를

7) 장슬기, "한국의 교육현장 속에서 미래학교를 찾다"(경기도교육연구원개원3주년 기념심포지엄자료집, 2016), 90.

8) 이머징 이슈 분석은 1970년대 후반 미국의 Graham Moliter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머징 이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트렌드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머징 이슈는 아직 전면에 들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새로운 강력한 트렌드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슈를 말한다.

일으키고 있다. 물론 입시에 종속되어 있고 현장마다 시행착오 가운데 전개되고 있으나, 분명 긍정적인 방향의 이머징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이다.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처럼 존재했던 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육적 연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단순한 교육계의 작은 변화가 아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융합되어 전환의 큰 메가트렌드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의 흐름 아직은 맹아적 수준에서의 이머징이슈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교육계 내의 중요하며 공고한 트렌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3. 미래교육의 방향과 특징

미래학에서는 통상적으로 15 ~ 20년 뒤의 미래를 장기 미래라고 하는데, 현재 세계적인 미래교육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030년⁹⁾ 전후의 미래사회, 미래학교에 관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벨기에와 핀란드 등 해외교육연구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내연구기관의 예측과 전망들이 있다.¹⁰⁾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미래교육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네트워킹: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동시적 연동, 학교 교실너머로 확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광범위한 사용, 전문기관과의 상호네트워킹, 교사와 전문가들이 고도로 동기화, 트랜스포머-학습공간(접속과 연결성확보, 공간연결성 확보), 학교 안팎의 활발한 인적 교류, 교사·학습자 간 실시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킹,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교육

2) 스마트학습공간: 학습공동체를 위한 시스템과 웹서비스, ICT 활용의 극대화, ICT 학습과 네트워킹이 광범위하게 활용,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학습,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가 가진 풍부한 자원과 결합, 스마트 학습관리 및 지원 체계, 트랜스포머-스마트학습공간, 공간적 다양성·융통성·활용성을 고려한 학습환경구축, 교사·학습자 간 실시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체계 구축,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무학년 학점제: 연령에 관계없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 무학년제를 기반으로 학사운영이 유연하며, 오전에는 필수적 최소의 기본교과수업, 오후에는 학생선택 맞춤형교육과정 형태, 학업과 졸업 시기는 중요하지 않음, 모든 연령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실험이 증대,

4) 학습공동체: 학교 내 학습가족이라는 학습공동체가 존재, 학교는 공동체의 지식센터로 재탄생, 연령 대신 지식과 역량과 흥미와 학습유형으로 학습공동체 구성, 관심과 흥미 중심으로 그룹화된 학습공동체, 학습집단은 소규모, 수평적 팀 지향조직, 학습의 개별화는 공동체강조로 인해 감소,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가능한 학습조직으로 탈바꿈, 소속감을 갖는 공동체, 협업평가

5) 직업연계 역량기반 평생교육: 학습단계초기부터 직업세계와의 밀접한 관련성, 학교교육체제는 평생학습의 근간, 학교와 직업세계의 유연한 이동, 교육의 여러 영역에 산업인프라가 능동적 참여, 모듈기반 직업훈련, 도제모델도입, 학벌이나 자격증보다 역량중시 사회, 직장에서의 배움과 평생학습, 평등 이념에 기초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기술·태도·가치에 기초한 인지·비인지적 기초를

9) 최근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 The OECD Education 2030’ 이란 이름으로 2017년도부터 수행될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앞으로 주목해야 연구인데, 미래를 무한정으로 상정하지 않고 203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30년이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해이며, 중등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세대의 핵심 그룹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0) 김영철외,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20-37.

쌓음,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 글로벌 직업창출인, 역량평가,

6) 교사의 역할변화: 교사는 팀으로 함께 공동코칭, 교사를 위한 직업경험기간을 통해 진로코칭역량 강화, 교사는 학습자의 맞춤형학습경로 코칭하며 안내하는 역할, 학습중재자, 학습공동참여자, 전통적 교과경계가 무너지고, 통합교과 범교과의 확대, 문제해결 프로젝트 확대, 메타학습(학습전략)을 가르침, 학생상담강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지역사회의 책무가 결합된 복잡한 역할, 미래사회를 설계하는 센터역할, 팀티칭과 교사전문학습공동체 연결, 교사 다수 대 다수 학생 모형, 주제 중심 학습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육자, 주제별 전문가로서의 교육자, 학생별 학습이력과 과정 분석과 이에 대한 코칭, 교사 뿐 아니라 학교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인력,

7) 교육자치, 지역사회의 마을교육생태계: 학습공원, 학습마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열린학습공간 구축, 민주적이면서 협동조합형태와 유사한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실,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담당해야할 역할에 우선순위가 주어짐, 지역사회에 양질의 학습환경 제공, 지역사회의 책무가 결합됨, 지역사회 활동가와 학부모의 역할이 제고됨, 학교의 독점이 이완되고 사회 지역과의 연계가 강조됨, 지역학습생태계의 구심점역할, 학습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시스템, 돌봄과 교육책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회, 일상적인 문화활동과 공연 나눔 문화, 교육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사회적 대책 및 사회적 합의 병행 등.

4. 미래교육과 생태마을운동

앞에서 기술한 일곱 가지 미래교육의 특징을 추출하며 이 모든 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중핵적인 미래교육시스템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모든 담론을 담아낼 그릇은 곧 ‘학습공원, 학습마을, 마을교육공동체’ 이었다. 즉 물리적공간과 온라인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네트워킹 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융합된 교육사회 즉 마을교육공동체로의 대전환이 미래교육시스템의 큰 프레임임을 알 수 있다. 분명 4차 산업혁명의 수혜로 발생하는 초연결망은, 산업 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전반을 융합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 관한 Davos Forum보고 중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29가지>를 면밀히 보면, 미래사회는 ‘지구촌 고령화시대 소비패턴의 진화/ 녹색성장과 지구촌 공동이익추구/ 선진국 중산층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요구/ 탈성장 시대와 공유경제/ 삶의 질 도전받는 메가시티/ 일자리 급감이 우려되는 제4의 산업혁명/ 의미있는 삶을 위한 신 자급자족시대/ 개인이 주도하는 경제와 산업과 에너지’ 등으로 인해 ‘마을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대전환’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교육의 7가지 공통적 특징 중 “교육자치, 지역사회의 교육중심 마을생태계” 를 살펴보면, 민주적이면서 협동조합형태의 지역학습생태계가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즉 ‘학습공원, 학습마을’ 등의 개념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열린 학습공간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진행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러한 미래교육의 방향이 될 터인데, 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단계와 모형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맹아는 생태운동과 귀농운동과 그리고 공동육아운동 등 풀뿌리 운동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는 중앙 정치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면 시작된 풀뿌리 운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를 설립하는 대안교육을 어느 정도 전제해 있었다. 이런 대안학교운동은 공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혁신학교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학교 너머, 혁신교육지구로 펼쳐지며 지역사회전환을 꿈꾸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수렴되고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의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강조점은 다르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을 통한 교육(learning through community)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배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에서 제시될 마을교사들의 활동, 각종 유관기관 연계 교육복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마을에 관한 교육 (learning about community)이다. 이는 학생이 속해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마을의 역사탐방이나 지역일터 체험활동 등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마을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community)이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봉사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지원되어야 한다.¹¹⁾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¹²⁾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결합되어 지역사회를 재조직 혹은 전환하는 사회전체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공간으로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21세기 이상적 학교는 '마을이 학교다'의 구체화된 모습일 것이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미래 비전은 마을교육공동체, 즉 '학교를 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학교와 지역이 '마을교육공동체'로 거듭나 혁신교육의 품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혁신학교 운동이 학교 안의 운동이었다면,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운동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우리 교육운동의 역사에서는 초유의 경험이며, 전방식위 적인 협력 거버넌스 시행은 교육운동사 및 지역사회운동사에 있어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 4차 산업혁명로 인한 디지털 가상현실로의 초연결시대에서 오히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네트워크 세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안은, 실체의 세상 안에서의 인간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인격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회관계적 인류는, 인공지능과는 지식적 교류는 가능하겠지만 인격적 교류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소외가 심화되어가고 한국사회에서, 그 대안으로 가정, 친구, 동우회, 마을, 지역사회와 같은 실체적 공간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 중요하게 기능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의 기계적 문명이 확산될수록 인류는 '현대와 연대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더 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마을교육공동체의 모형과 사례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마을교육공동체들의 발달과정을 관찰하면, 학교와 마을의 연계의

11) 심정보, "21세기 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운동"(NSC기반 마을교사역량강화프로젝트 1주차 자료집, 2017).

12) A. Hargreaves & D. Shirley 지음, 이찬승외 옮김 『학교교육 제4의 길 1』(21세기교육연구소, 2015), 150.

질적 수준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1단계로 학교가 마을 주민을 위해 공간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로, 학교도서관이나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과이나 마을행사나 주차장사용을 위해 학교공간이 사용되어진다. 학교는 일부교사의 필요에 의해 마을의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학교와 마을이 분리되어서 상호필요에 의해 일부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단계로 학교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을 마을의 교육역량과 연계하여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자유학기제나 창의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마을의 일터체험활동이나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거나, '마을해설사'들이 마을역사나 마을탐방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마을교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질적 결합의 높은 3단계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함께 협력교육사업을 진행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더불어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이 서로에게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도 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발달과정이 1, 2, 3단계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거나 순서대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호혜적인 과정을 통해 신뢰관계가 깊어질수록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발달과정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협력의 센터역할을 하는 중심에 따라, 학교중심 협력모형, 마을중심 협력모형, 교육청-지자체 협력모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모형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¹³⁾

마을시대의 도래와 전환마을운동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로의 대전환은 스마트기술과 인공지능시대의 엄청난 기술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체와 영성을 회구하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흐름의 대전환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적으로는 전환마을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마을운동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마을공화국, 마을자치, 네오마을시대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다. 즉 삶의 질을 위한 중산층의 시민의식성장, 공유경제시스템의 발전, 신자급자족시대의 도래 등은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생태마을과 전환마을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1. 마을공화국시대의 도래와 초록문명사회(Eco-Dream Society)¹⁴⁾

인류의 역사가 모듬살이인 마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문명 발전의 정점으로서 국가와 제국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분권과 자치의 지방자치체 시대를 거쳐 이제 마을(공화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계평화정부의 상(象)에 대해서 사회적 공상(social fiction)을 해보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제 제국과 국가주의에서 지방분권주의 시대를 거쳐서 마을(공화국)주의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생태마을, 전환마을 등의 이름으로 문명전환과 세계변혁을 추구하는 마을(공화국)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돌개바람을 일으키며 성장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그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임을 간파했다. 그래서 합법적 폭력과 정의의 결합체인 국가를 해체해야만 폭력과 전쟁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국가소멸이나 해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13) 김영철외,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72-81 참조.

14) 임진철, “마을공화국을 상상하라!” (지구마을UN代學庭園 강연자료, 2017).

대안으로 마을공화국을 제안했다. 간디가 제안한 마을공화국 요지는 대략 이렇다.¹⁵⁾

인도에는 70만 개 마을이 있다. 70만 개의 마을은 각자 주민이 선출한 5명 내지 11명의 판차야트 위원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마을공화국을 건설한다. 마을공화국은 마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고도의 자치(스와라지)와 자급자족 경제(스와데시)를 구현한다. 그 상위에는 마을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연방기구를 두고 세계적으로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을 둔다. 그런데 마을공화국 상위의 조직은 마을공화국에 대해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명령할 수는 없다. 그 상위조직은 명령권이 없기에 당연히 군대를 둘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군대가 없는 비폭력 세상이 구현된다. 이렇게 될 때 마을이 세계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인류의 노력여하에 따라 제4차산업혁명에 '마을(공화국)이 세계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당기게 하는 객관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제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로봇이 인간의 근육을 상당부분 대신하는 시대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류는 농사꾼으로서 살아가는 네오농업문명사회를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반의 영성적 삶을 추구하는 네오야면문명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마을단위로 모여 사는 네오마을시대를 열 것이고, 그 네오마을의 모습은 오늘날의 생태마을(독립/전환)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산업혁명을 마주한 지구의 개인 시민들은 마을공화국운동(독립/전환)에 진력해야 한다.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화하여 지구마을UN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2. 전환마을운동과 생태마을공화국의 자립시스템

앞서 문명은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으로부터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했다. 여기서 생태마을(독립/전환)은 자원순환형 문명전환의 씨알이자 풀뿌리 주체이다. 문명전환은 탈바꿈과 재도약을 키워드로 하는데, 이는 농촌의 부활과 도시재생 그리고 도농상생으로 나타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전환운동의 풀뿌리주체는 네오마을 즉 생태마을이다.

일반적으로 생태마을(Eco-village)은 강한 생태지향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어 지역사회를 혁신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지향성이 강하다. 생태마을운동은 오늘날 계획적으로 만드는 '독립생태마을운동'과 기존자연마을이나 도시를 대안적(생태적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매개로 혁신(탈바꿈과 재도약)하는 '전환마을(도시)운동' 등 투트랙으로 전개 된다. 그동안 생태마을운동은 '독립생태마을운동'이 활발했으나 이제는 주춤하고 오히려 기존마을을 대안적 가치를 기반으로 혁신(탈바꿈과 재도약)하고자하는 '전환마을운동'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다.

1) 전환마을운동의 확산

2006년 아일랜드의 킨세일(Kinsale)과 영국의 토트네스 (Totnes)에서 시작된 전환마을운동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 되었다. 전환마을운동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4년 11월 현재 세계적으로 43개국 1,196개 조직이 전환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다.¹⁶⁾ 한국에서 '독립대안학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가 200여개를 넘어서면서 주춤해지고, '독립대안학교'의 대안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하며 기존학교를 혁신하는 '공교육혁신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운동맥락을 가진다.

전환마을(도시)운동의 창시자 롭 홉킨스(Rob Hopkins)는 전환마을(도시)의 출발점은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전환마을(도시)은 더 지역화

15) 마하트마 간디지음, 김태연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녹색평론사, 2011).

16) 홈페이지 www.transitionnetwork.org 참조

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전환마을(도시)운동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이며,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이다. 전환마을(도시)운동은 다양성, 창조성, 자급성을 중시하며, 경제진흥이 이루어져야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궁극적 목적은 전환문화의 정착이다. 전환마을운동의 목적은 영국의 작은도시 도트네스의 녹색전환운동을 비롯한 지구적 전환네트워크의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보면 알 수 있다.

- ① 새로운 검소함과 큰 사회적 관계(the new austerity and the big society)
- ② 집단적 힐링과 사회변화(collective healing and social change)
- ③ 생태적 문화적 재지역화(relocalization)
- ④ 지역재생 혹은 지역공동체의 생명력 복원(resilient communities)
- ⑤ 탈성장 혹은 성장없는 번영
- ⑥ 정상계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
- ⑦ 거룩한 경제(sacred economy)
- ⑧ 영성적 사회운동(subtle activism, spiritual practice)
- ⑨ 약탈적 소유에서 생성적 소유로의 전환 등

2005년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 토트네스의 퍼머컬처 강사였던 룽 홉킨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는 이들이 그룹을 결성하고, 영화제를 개최하고, 생활을 위한 기본기술강좌, 자연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환도시, 전환마을, 전환농촌, 전환대학, 전환이웃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현재 40여개 나라, 1,000개 마을이 전환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 전환마을운동의 핵심적 내용

룬 홉킨스는 전환마을(도시)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 하였다. 한국으로 말하면 읍·면·동의 규모이다. 그래서 전환운동이 초기에는 주로 중소도시(town)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환도시(city), 전환마을, 전환 촌락, 전환 대학(학교), 전환 거리, 전환 공간, 전환 이웃 등이 나타나면서 전환운동을 전환도시로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정확한 표현도 아니게 되었다. 그 활동내용은 공동으로 밥해먹고 영화보기(그런 식당 운영하기), 길가정원조성, 공동체텃밭조성, 빈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이나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하기, 자원재활용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어나갔다.

오늘날 전환마을운동은 중심거점 1km반경 내에서 다양한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며 이곳을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탈바꿈시키고 재도약하는 활동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특징을 가진다. 전환마을(도시)운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예술과 공예, 산업경제, 다양성과 사회정의, 교육, 효과적인 그룹, 에너지, 음식, 건강, 주택, 내재적 변화, 지방정부, 교통 등 12개 주제로 분류한다. 전환마을(도시)운동은 12개 분야와 전환마을, 전환대학(학교), 전환거리, 전환공간이 점-선-면으로 연결됨으로서, 기존의 도시가 재생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이 높아져 탈바꿈되고 재도약하는 것을 과제(목표)로 한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과 규모로 전개되는 전환마을운동의 핵심키워드는 ‘전환’과 ‘자립’이다. 여기서 전환은 ①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으로부터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의 전환 ② 교환경제시스템 중심에서 호혜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 ③ 머니자본주의체제(자본주의 시장경제/돈벌이 시장)로부터 마을숲 자본주의체제(호혜주의 시장경제/호혜시장)로의 전환 ④국가연합UN체제와 지구마을연방체제가 ‘따로 또 같이’ 방식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국가연합UN체제에서 지구마을연방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환마을(도시)운동은 마을공화국운동으로 지평을 확장하며 발전해나가고 있다. 마을(공화국)은 사람의 모듬살이 가운데 가장 작으면서 최적의 규모이다. 하지만 참새가 작아도 오장육부를 갖추고 있듯이 마을(공화국)도 사람 사는 데 필요한 오장육부의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은 자급자족적 이어야하고 자립적일 때 지속가능하다.

3. 내적 전환

최근 전환마을운동의 시초인 토트네스의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내적전환'(inner transition)이다. 에너지자립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퍼머컬처 등등 눈으로 보이는 외적전환과 더불어 구성원들 각자의 내면의 전환도 함께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의 내적전환이다. 나아가 외적전환과 내적전환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한 예로 토트네스의 공공텃밭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마을에서 놓고 있는 땅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공공텃밭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빈 공간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를 더 확장하면 전환마을과 마을의 연결이 곧 지구적 전환마을인 것이다. 에너지, 경제, 기후변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소통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문제가 지구의 문제와 연결되고 한 사람의 희망이 지구의 희망과도 연결된다는 세계관이다. 문명의 전환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전환이란 점진적, 의도적 변화다. 급진적 혁명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다. 자연 파괴 문화에서 벗어나 마을 중심, 지역회복력이 있는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다. 전환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공동체(community), 회복력(resilience), 지역화(localization)이다.

첫째, 공동체는 작은 규모이어야 한다. 전환은 공동체 수준으로 지역 주민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회복력은 전체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유지하고 전진하는 것을 뜻한다. 전환 개념을 분석할 때 공동체가 회복력을 잃었다는 것은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회복력이란 오투기 같이 소생하는 힘을 갖고 예기치 않은 시기에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예기치 않은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극심한 경제양극화, 금융위기, 화폐 폭락사태, 공황 등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에서 큰 변화가 생기더라도 커뮤니티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지역화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경제적 물질적 수준에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세계화와 반대로 작은 마을에서는 지역화가 기회가 된다. 청년들이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 전환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흐름은 미래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가? Davos Forum 보고 중 <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 29가지 >에서 촉구하는 '마을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대전환'을 미리 실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미래교육의 7가지 공통적 특징 중 '민주적이면서 협동조합형태의 지역학습생태계, 학습공원, 학습마을' 과 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열린 학습공간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는 어느 지역일까?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을 보고에서는 "미래사회의 전환마을교육공동체 모형"으로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원리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그 모형으로

말할 수 있는 흥성지역의 풀무학교와 흥동중학교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연관된 모델로서 벨기에의 학습공원을 제시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환학교’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원리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사회의 창조적 형태가 될 전환마을교육공동체를 개념화하면서,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한계 혹은 문제점들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 즉 주민자치적 활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거나 이익집단의 동지가 될 경우에, 자본획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폐쇄적인 네트워크에 의존, 파벌화, 지역이기주의, 공동체간의 분열 등의 부작용을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신뢰를 상실한 공동체의 해체는 마을공동체든, 교육공동체든, 전환마을이든, 전환학교든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미래에 문명의 이기로 융복합적인 고도의 하이테크가 실현되는 사회가 도래할지라도 ‘경쟁, 인간소외, 분열, 폐쇄적, 상처, 독점, 폭력, 단절, 증오, 해체, 독재, 계급, 방관, 무책임, 이익집단, 파벌, 이기주의, 불공평, 불평등, 불의, 성장주의, 오염 등’으로 점철되는 곳이 된다면 결코 행복한 미래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룰 때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를 잘 이루기 위해서 철학이나 신념의 공유, 협치의 공동서약, 구성원의 검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치를 위한 철학적 토대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인다. 이에, 앞서 소개된 다양한 사례의 마을공동체와 학교공동체의 자료들과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었던 3인의 사상가(그룬트비히, 이승훈, 홍순명)의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글들을 토대로 중핵적인 가치를 선별하였다. 다양한 가치들이 상존하고 서로 개념적인 공통점을 내재하고 있기에, 상위하위의 개념이나 포함관계의 개념설정은 쉽지 않으며, 사회학자나 언어학자들의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엄밀하지는 않은 상식 수준에서 <미래/전환/마을/교육/공동체>를 담아낼 수 있는 가치를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해 보았다.¹⁷⁾

〈미래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핵심가치	연대가치
공동체	연대, 협력, 동반자의식, 협동, 사랑, 복지, 상호 돌봄, 치유, 환대, 공유, 평화, 조화, 공공, 존중, 배려, 공감, 소통, 신뢰, 문화, 상생 (관계망, 상호호혜적)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민주시민, 평민정신, 시민성, 정의, 자치, 주체, 자립, 자율, 공공성, 권리, 책임, 상호존중, 자유, 소통, 합의, 자발성, 협치, 평등, (약속, 서약, 거버넌스)
생명(생태)	환경, 생태, 생태계, 순환, 지속가능한, 유기체, 건강한 성장, 자급자족 (친환경, 적정기술)
융합	연대, 연결, 초연결, 네트워크, 초연결사회, 지역사회와 세계화, 통합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플랫폼, 센터,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환	재창조, 대안적, 창조성, 문명사적 위기와 기회, 미래에로의 전환, 생태적 전환, 재도약, 혁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
배움(교육)	삶의 교육, 가르침과 배움, 학습, 앎, 계몽, 자각, 실천, 진로, 더불어 배움, 적성과 재능, 가치와 역량, 지식, 평생학습 (다음세대, 학습센터, 학교)

*괄호안은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개념

2.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모형

‘미래사회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모형에 대한 단초 혹은 Emerging Issue가 될 수 있는 모델로,

17)김영철외,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88.

오래된 미래를 실현하고 있는 <홍동지역과 풀무학교와 홍동중학교>를 떠올리게 된다. 홍동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 마을과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한 학교 교육이념 (정승관, 2016)

- 2016학년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교육목표 중 제 8항 더불어 사는 지역과 학교' :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선용하며,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협력한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관리체제는 생태, 경제, 자치, 문화 등 협동적 공동체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전공부 학교안내 중 '학교의 나아가는 방향'
 - 가. 우리나라 환경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환경농업과 지역을 활성화 시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평화사회를 실현하려는 신념과 이상을 가진 농민을 기른다.
 - 나. 학교의 모든 강좌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이 현장 교수가 되고, 주민이 학생이 되어 평생 지역교육을 실현하는 풀뿌리 주민대학을 실현한다.
 - 다. 학교의 실습지 자체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가공, 유통, 정보, 문화의 기능을 갖춘 복합영농을 실천하여 친환경적인 마을의 시험본이 된다.
 - 라. 교육은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국내외 현장 교수, 현장실습지에서 배우는 열린 교육을 한다.
 - 마. 학교는 마을의 올바른 발전과 방향을 같이하고, 학교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을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도록 한다.
-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나 되는 교육 : 지역은 교실이고, 학교는 지역의 한 마을이다. 농업과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역사와 문명의 바탕이다. 도시에 살더라도 농산물의 소비자로서 흙의 고마움을 알고, 농민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지향하는 지역사회는 교회와 학교가 생명과 지역을 사랑하며 배우고, 유기농업과 직거래, 지방자치 참여와 주민의 지역 협의체 구성, 특산물 개발, 축제 등의 지역 문화, 협동조합, 세계와의 연결, 식품 가공 등 지역공업육성, 공해 없는 에너지의 개발 등에 앞장서야 한다. 학교와 지역은 농업은 생명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의 생태계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분권과 자급순환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는 국가의 건강한 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홍동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각종 기관 및 단체

- 협동조합설립
 - 가. 동네마실방 '뜰'(2011. 3. 11) 나. 얼렁뚱딱건축조합(2013. 1. 25)
 - 다. 젊은협업농장(2013. 5. 9) 라. 풀무신용협동조합(1969. 11)
 - 마.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1977) 바. 할머니장터조합(2012. 10. 26)
- 마을지원
 - 가. 그물코출판사(2001. 5) 나. 마을활력소(2011. 1. 3)
 - 다. 문당권역영농조합법인(2005. 7) 라. 오누이권역(2013~)
 - 마. 홍동밤밭도서관(2011. 10. 22) 바. 우리마을의료생협(2015. 5. 9)
 - 사. 홍성여성농업인센터(2002. 4. 20)
- 마을사업
 - 가. (주)다살림(2009) 나. (주)홍성풀무(2009)

18) 정승관, 『오래된 미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2016교사혁신대회자료집II), 415-421.

• 마을교육

- 가. 갓골목공소(2007. 11) 나. 갓골어린이집(1981. 3)
- 다. 꿈이 자라는 뜰(2010~) 라. 논배미(2009. 2)
- 마. 원예조합 가꿈(2011. 3. 1) 바. 문당환경농업마을(2000. 12)
- 사. 장곡 신나는 지역아동센터(2010. 4. 17)
- 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1958. 4, 23)
- 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생태농업전공과정(2001. 3. 28)
- 차. 햇살배움터 교육네트워크(2008) 카. 협동조합 청춘(2013. 12)
- 타. 흥동중학교(1971. 3. 11) 파. 흥동초등학교(1922. 4. 21)

• 환경농업

- 가. 은퇴농장(1995) 나. 정농회(1976) 다. 평촌목장(1980)
- 라.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1980)
- 마.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2005)

최근에는 지역에 있는 각급 학교(갓골어린이집, 흥동초등학교, 금당초등학교, 흥동중학교, 풀무농고, 그리고 전문대학과정인 풀무 전공부)가 함께 하는 범교과 활동인 ‘햇살 배움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하는 마을이 망라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여러 해 전부터는 위의 각급학교 뿐 아니라 지역의 각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흥동거리축제’도 열리고 있다.

풀무학교의 전 교장이었던 홍순명 선생은 “학교와 지역이,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에서 할 일은 무한히 많죠. 지역은 인위적인 행정 단위만이 아니고 문화와 생태와 생활의 단위이고 분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니까, 지금 분산된 지역을 하나로 갖추어 나가려면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흥동마을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교육의 숙제는 아직도 무한하다. 이러한 숙제들을 어린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참여하며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온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아닐까.

현재 풀무학교 전공부와 마을도서관을 통해서 학교 학생 뿐 아니라 마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풀무학교로부터 시작하여 마을로 확장된 다양한 협동조합들은 마을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고 자치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¹⁹⁾

분명, 우리나라 대안학교운동과 마을공동체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풀무학교와 흥동마을은, 본고에서 개념화한 ‘미래사회의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사례로, emerging issue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3.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해외모델로서의 ‘학습공원’

현재 한국사회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들은 학교중심 협력모형, 마을중심 협력모형, 교육청-지자체 협력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모형들은 현재적 시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에서부터 지역이나 학교로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다. 결국 상호융합을 지향하며 더 긴밀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가장 완성도 높은 상태를 ‘흥동지역사회와 함께한 마을교육공동체’로 예를 들었다. 이와 더불어서 미래학교의 모형에 대한 해외연구사례로 2030년 즈음에 전환마을교육공동체의 형태를 잘 예견하고 있는 연구는, 벨기에의 ‘학습공원’로 볼 수 있다. 미래사회의 학교에 관한 해외선행 연구자료 중 벨기에의 ‘학습공원’ 모델은, 매우 매력적이며 미래적인 마을교육공동체론에

19) 강영택·김정숙,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협력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2011).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1) 벨기에 「2030년 미래학교 : 어떻게 학습과 작업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The New School in 2030: How can we make learning and working attractive?) 벨기에의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 (The Learning and Redesign Lab)’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30년의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2030년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학습공원(The Learning Park)²⁰⁾’을 제안
- ‘학습공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열린 학습공간으로,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 동시에 연동되어 구현됨
- 필요에 따라 현재 일반적인 학교처럼 닫힌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가능
-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서로에게’ 배움
- 무학년제를 기반으로, 학교 내에 ‘아카데미(academy)’라는 작은 학교가 있고, 아카데미 속에는 ‘학습가족(learning family)’라는 학습공동체(15~20명)가 존재, 교사는 팀으로 함께 공동 코칭의 역할
- 미래학교의 운영 방식은 민주적이며 협동조합형태와 유사
- 미래학교 학습공원은 학사운영이 여유가 있고 유연한데, 오전에는 필수적인 최소의 기본교과수업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학생선택 맞춤형교육과정의 형태로 자기주도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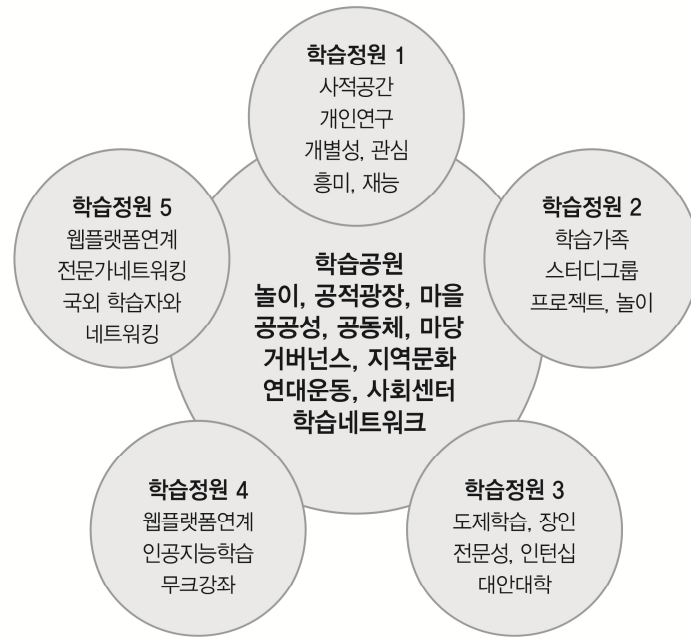
2) 학습공원에 대한 고찰

학교와 마을이 융합된 형태인 학습공원은, ‘지역기반 협력 교육,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운영하는 책임 공동체, 중앙정부를 넘는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통합 협치, 협동조합의 형태의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협력 프로젝트학습, 학습촉진자 겸 프로젝트 관리자 겸 코치로서의 교사, 적절한 표준화 교육과정, 학습가족과 학습공동체형태, 코칭능력 중시, 권위적이지 않는 코디네이터로서의 리더십’ 등과 같은 미래적 교육공동체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이런 매력적인 학습공원의 여러 속성들을 담고 있는 교육공동체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도 시도되어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4가지 모형의 사례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다. 특정한 측면에서는 학습공원이 예측하고 있는 형태보다 더 진보적이기도 하다.

오히려 ‘학습공원’개념은 지역사회와의 교육적인 교류형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다채로운 모습들과 융합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학습자중심의 학습센터의 측면만 강조되어있다. 전통과 함께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교육공동체로 어우러지고 있는 ‘홍동마을과 풀무학교와 지역학교’는 오히려 학습공원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20) 학습공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핀란드의 경우, 2030년의 학교모델로 ‘학습마을(learning village)’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원을 미래마을교육공동체의 모형으로 여기고 5장과 6장에서 상술하고 있다.



학습공원과 학습정원

학습공원의 공공성에는 서당과 학당과 서원과 같은 ‘학습정원’과 같은 도제적 가르침 즉 학습정원의 개념도 필요하다. 공적인 공원의 개념과 사적인 정원의 개념에 대한 관계모델은 위 그림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동시에 도제적 학습정원에 대한 모형을 구상해야한다.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마을의 경제자치를 위해서 직업영역에서의 도제식 교육형태나 직업교육이,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문학과 예술의 교육에 있어서도 도제적 형태가, 교육공동체가 단지 흥미와 관심사만 아니라 학문적 깊이를 추구하는 ‘대안대학’과 같은 형태와도 같은 학습정원들이 곳곳에 구현되어야겠다.

3) 학습공원과 전환마을교육공동체

사실 한국의 마을교육공동체들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공원’개념의 중요한 지향과 방안들이, 곳곳에서 실제로 한국의 토착화된 형태로 다양한 단계와 양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공원’에 개념이 벨기에나 북유럽적 상황에만 국한되는 특수한 미래적 모형이라기보다 인류의 보편적이며 상용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특정한 측면에서는 학습공원이 예측하고 있는 형태보다 더 진보적이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학습자중심의 학습센터의 측면만 강조된 ‘학습공원’개념을 넘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교육공동체로 정착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당과 학당과 서원과 같은 학습가족이나 학습아카데미개념보다 더 도제적 가르침에 가까운 ‘학습정원’의 개념의 도입도 제안하였다. 공적인 공원의 개념과 사적인 정원의 개념에 대한 관계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넘어 학생수업개설권리가 필요하며, 학생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습커리큘럼을 구성하며, 평가단계에서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칭 전문가(교사)가 구현되고 있는 한국 대안학교의 사례도 소개하였다.

평가 측면에서, 학습정원이나 학습공원과 같은 학교 밖의 학점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학점제도와 연동될 수 있는, 유연하면서 심도있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평가형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기존 지역사회나 마을의 큰 변화 즉 전환 없이는 학습공원이 생성되기 힘들기에, 전환마을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마을공동체의 전환의 힘은, 학습공원에 전혀 다른 토양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4. 전환마을교육공동체와 '전환학교'

전환의 시대에서 전환마을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시점에서 최근에 전환학교운동을 선언한 학교들이 있다.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환학교 중에서 금산간디학교를 중심으로 소개하려한다. 태영철교장은 금산간디학교 중학과정을 '전환학교'로 선언하게 된 것은 문명사적 위기, 사회적 위기, 존재론적 위기들의 가속화로 교육 불가능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²¹⁾

첫째로, 문명사적인 위기의 가속화이다. 기후변화, 피크오일, 핵이나 테러, 환경에 따른 안전문제는 인류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다시 고민하게 한다. 그 어떤 정책과 시스템도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고민들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는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교라는 체제가 시스템의 균열을 넘어 해체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예측이었다.

둘째로, 사회적 위기의 가속화이다. 자본주의의 가속화는 빈부격차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이어졌고 드디어는 교육 해체의 가속화로 드러났다. 시장이 개입한 지 오래인 교육 역시 좀비 자본주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셋째로, 존재론적 위기의 가속화이다. 자본주의의와 가족해체의 가속화, 사회적 안정망의 해체로 인해 청소년들은 더욱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정서발달과 사회성발달은 더디기만 하고, 새로운 장애와 온갖 증후군을 앓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이 사회에는 휴대폰과 게임에 중독되고, 입시교육의 패배자로 낙인찍히고, 학교폭력과 왕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학생들이 가치있는 존재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가속화는 교육 불가능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20년 전, 대안교육의 깃발을 꽂을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들로 인해 대안교육의 쇠신을 바라며 '대안교육 2.0'이라는 담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혹은 상상력은 무엇일까? 그 답으로 전환교육 혹은 전환학교를 제안하고 있다. 말하자면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전환교육의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우선,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문명의 위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 전환적 사고, 기술 습득이 가능한 대안적 환경을 구축하는 교육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자립과 의식주 자립기술 습득 등에 관한 교육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학교의 건물과 환경 자체를 전환기술로 바꾸는 교육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구독점기업의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직접 실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다. 자본의 축적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적 사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환마을이 바로 사회적 전환을 위한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화페, 마을축제, 마을카페, 마을가게 등의 다양한 생산 활동은 물론이고 동아리모임과 학습모임, 자조모임, 쉼어하우스(공유하는 집) 등의 다양한 사적 모임까지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를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 짓지 않고 마을과 지역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공간도 확장해가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마을을 통해 인적·물적 만남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에서 배움을 얻어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마을과 학교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학생들은 마을을 교육과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존재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다. 파괴되고 해체된 사회와 가정의 영향으로

21) 태영철, “금산간디학교와 졸업생 그리고 전환마을로서의 금산” (2017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2차 전문가협의회 자료집, 미발표논문).

‘3무(무기력, 무감각, 무의미)세대’로 전락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주체적 개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의 자발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인문·철학적 사고를 통해 세계관의 전환을 촉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 감수성과 사회적 감수성의 조화를 통해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성숙시키는 근원적 교육이기도 하다.

문명사적, 사회적 전환을 시도하면서도 존재적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학교들과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만나며, 2017년 ‘전환교육모임’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는 말

전환마을교육공동체가 미래의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인가? 이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고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문명의 전환이나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한데 여전히 한국교육의 고착화된 경직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환학교 또는 전환마을교육공동체로의 이행은 요원할 뿐이다.

위기의 한국교육은, 학교 내부의 전환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환이 통합적이며 전방위적으로 작동할 때 교육의 본질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생태계적인 관점의 교육계를 상정한다면, 국가주도의 Top-down방식의 외부압력으로는 극히 한계가 있다. 재정과 조직력만으로는 생명력 없는 수동적이며 비지속적인 조직만을 양산할 뿐임을 우리 모두 잘 인지하고 있다. 오히려 생명력 있는 생태계 곧 전환마을공동체가 학교와 연동된다면, 미래학교로의 변화의 강력한 ‘Tipping point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환마을공동체운동을 위한 전환마을공동체연구소(혹은 연구센터)와 같은 형태가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교육생태계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피드백하고, 연결 짓고, 실천하는 ‘반성적 실천연구 플랫폼’을 통해 마른 땅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풀뿌리처럼 ‘전환마을교육공동체’는 전이되고 확산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택·김정숙.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협력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보고서, 2011.
- 김영철.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안보고, 2017-25.
- 김진숙. 4차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월간교육 2016년 7월호.
- 마하트마 간디. 김태연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사, 2011.
- 미래준비위원회. 미래 이슈 분석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5.
- 심성보. 21세기 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운동. NCS기반 마을교사역량강화프로젝트 1주차 자료집, 2017.
- 이경전. 2016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ISA. Power Review 2016.2.
- 임진철. 마을공화국을 상상하라! 지구마을UN代學庭園 강연자료, 2017.
- 정승관. 오래된 미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2016혁신교사대회II 자료집.
- 클라우드 슈밥. 송경진역.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 태영철. 금산간디학교와 졸업생 그리고 전환마을로서의 금산. 2017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2차전문가협의회 자료집.
- Hargreaves, A & Shirley, D. 이찬승외역. 학교교육 제4의 길 1. 21세기교육연구소, 2015.